

프랑스 개신교의 역사를 따라가는 여행

신앙과 용기, 그리고 국경을 넘은 유산

위그노의 유산

프랑스 · 12박 13일

파리 · 소뮈르 · 낭트 · 라로셸 · 생트 · 보르도 · 생테밀리옹 · 포 · 오르테즈 · 몽토방 · 툴루즈

앙리 4세가 태어난 포 성

평범한 사람들,
비범한 신실함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살고,
일하고, 기도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자주 떠나야 했던
도시들에서 보내는 열사흘.



황금빛 속 라로셸 구항구

위그노의 역사는 흔히 왕과 칙령, 포위전으로 이야기됩니다. 이 여행은 그 역사를 살아 낸 사람들을 통해 들려줍니다. **소뮈르**의 학자들, **라로셸**의 선주와 뱃사람들, 생트의 장인 **베르나르 팔리시**, **베아른**의 가정들, 그리고 **몽토방**의 주민들.

센강에서 대서양, 피레네산맥 기슭에 이르기까지, 여정은 한 종교적 소수자 공동체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회와 학교와 도시를 세우고, 권리를 지키고, **1685년** 법의 보호를 잃고, 신앙을 품은 채 **망명**길에 올라 네덜란드와 프로이센, 남아프리카, 아메리카 식민지까지 나아갔는지.

동시에 서부 프랑스의 부드러운 풍경을 지납니다. 응회암을 파낸 저장고가 있는 루아르, 대서양의 항구들, **보르도**와 **생테밀리옹**의 포도밭, 그리고 **앙리 4세**가 태어난 성. 오전에 한 곳, 오후에 또 한 곳, 그리고 장소마다 스스로 이야기할 시간을 둡니다.

사람의 이야기,
다섯 개의 장

여정의 도시마다 한 공동체의 삶에서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파리, 루브르 오라투아르 교회

제 I 장

종교적 소수자로 산다는 것

파리

왕국 곳곳으로 퍼져 간 신앙, 그리고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제 II 장

굳건한 공동체를 세우다

소뮈르 · 낭트

유럽 각지의 학생을 불러 모은 아카데미, 그리고 왕국 안의 자리를 약속한 칙령.


소뮈르 성


라로셸의 탑들

제 III 장

신앙과 정치적 권리를 지키다

라로셸 · 생트

포위전을 견딘 자유로운 항구 도시, 그리고 개혁교회의 장인들.

제 IV 장

보호를 잃다

보르도 · 생테밀리옹 · 포 · 오르테즈

상인 공동체, 잔 달브레와 앙리 4세의 베아른, 그리고 1685년까지 서서히 빼앗긴 권리.


포 성


타른강변의 몽토방

제 V 장

망명, 피난처, 그리고 기억

몽토방 · 툴루즈

끝내 버텨 낸 개신교 도시, 그리고 국경을 넘어간 것들을 되새기는 마지막 저녁.



앙리 *4*세 *(1553 – 1610)*
포에서 태어남 · 낭트 칙령

일곱 개의 연도로 읽는 두 세기 반

새로운 신앙에서 권리를 되찾기까지의 먼 길

이 여정의 도시들 뒤에 놓인 역사의 이정표.

1530 ◇ **새로운 신앙**
1530년 무렵부터 개혁 사상이 왕국의 장인, 상인, 학자, 귀족 사이로 퍼져 나갑니다.

1559 ◇ **첫 총회**
파리에서 프랑스 개혁교회들이 공동의 신앙고백을 채택합니다.

1572 ◇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8월 24일, 콜리니 제독과 수천 명의 개신교인이 파리에서, 이어 지방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1598 ◇ **낭트 칙령**
앙리 4세가 양심의 자유와 지정된 장소에서의 예배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1628 ◇ **라로셸 함락**
1년 넘는 포위 끝에 개신교의 요새가 루이 13세와 리슐리외에게 항복합니다.

1685 ◇ **칙령 폐지**
루이 14세가 칙령을 폐지합니다. 약 20만 명의 개신교인이 망명, 곧 '피난(르퓌주)'을 택합니다.

1787 ◇ **관용 칙령**
루이 16세가 개신교인의 법적 지위를 되돌려 줍니다. 출생과 혼인, 사망이 다시 등록됩니다.

센강에서
대서양과 베아른까지

일곱 곳의 숙박 도시, 연이어 호텔을 옮기는 일은 두 번을 넘지 않습니다.



1 파리 — 1 – 2일차
2 소뮈르 — 3일차
3 낭트 — 4일차
4 라로셸 — 5 – 6일차
5 보르도 — 7 – 9일차
6 생테밀리옹 — 9일차
7 포 — 10 – 11일차
8 몽토방 — 12일차

그리고 길 위에서 만나는 로마 개선문의 생트, 중세 다리의 오르테즈, 그리고 툴루즈에서의 송별의 밤.

13	11	4–5★	5
일, 12박	개 도시	엄선한 호텔	지역 문화 체험



여정 지도

센강에서 대서양과 베아른까지

전 일정 전용 대형 관광버스로 이동하며, 구간마다 몇 시간 이내의 여정과 일곱 도시에서의 숙박으로 이어집니다.

1 파리
1 – 2일차

2 소뮈르
3일차

3 낭트
4일차

4 라로셸
5 – 6일차

5 생트
7일차

6 보르도
7 – 9일차

7 생테밀리옹
9일차 · 당일 여행

8 포
10 – 11일차

9 오르테즈
11일차 · 당일 여행

10 몽토방
12일차

11 툴루즈
12 – 13일차

여행 전문가를 위하여

이 여행을 권하고 싶은 분들

> 분명한 역사의 흐름을 지닌 문화유산 여행.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이해하고 싶은 여행자를 위해 기획했습니다.

- 개혁교회, 장로교, 루터교, 복음주의 전통의 **개신교 유산에 관심 있는 여행자.**
- 깊이 있는 이야기와 묵상의 여유가 있는 의미 있는 여행을 찾는 **교회와 교인 단체.**
- 종교개혁과 종교의 자유에 관심 있는 **그리스도교 역사 애호가**와 연구 모임.
- 프랑스의 역사와 건축, 와인 산지, 대서양 연안에 매료된 **문화 여행자.**
- **위그노 가문의 후손**과 가족사에 관심 있는 분들. 피난의 역사와 그 행선지를 생생히 만나실 수 있습니다(가계 조사는 포함되지 않음).

*1685*년 이후 많은 위그노 가정이 북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영국, 네덜란드, 독일에 정착했습니다. 프랑스를 훨씬 넘어서는 공동의 역사입니다.

한눈에 보는 여행

기간	12박 13일
도착	파리 샤를드골 공항
출발	툴루즈 블라냑크 공항, 연결편 가능
국가	프랑스
교통	전 일정 전용 대형 관광버스, 구간별 예상 소요 1 – 4시간
가이드	한국어 인솔자, 주요 방문지의 공인 현지 가이드
인원	권장 15 – 30명
호텔	4성급·5성급 프리미엄 호텔
여행 시기	4월 – 6월, 9월 – 10월 중순



제 1 장

종교적 소수자로 산다는 것

루브르 맞은편, 왕실의 본당이던 생제르맹 로세루아 성당. 전승에 따르면 1572년 8월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밤, 이 성당의 종소리가 성 바르톨로메오 학살의 신호였습니다.



트로카데로에서 본 파리와 센강

1일차 · 파리

파리, 역사가 시작되는 곳

오전	오후	저녁
파리 샤를드골 공항 도착	버스로 파리 시내 이동(약 1시간)	환영 만찬
인솔자 영접	체크인 및 휴식	파리 숙박

함께하는 첫 저녁, 그리고 긴 역사의 밑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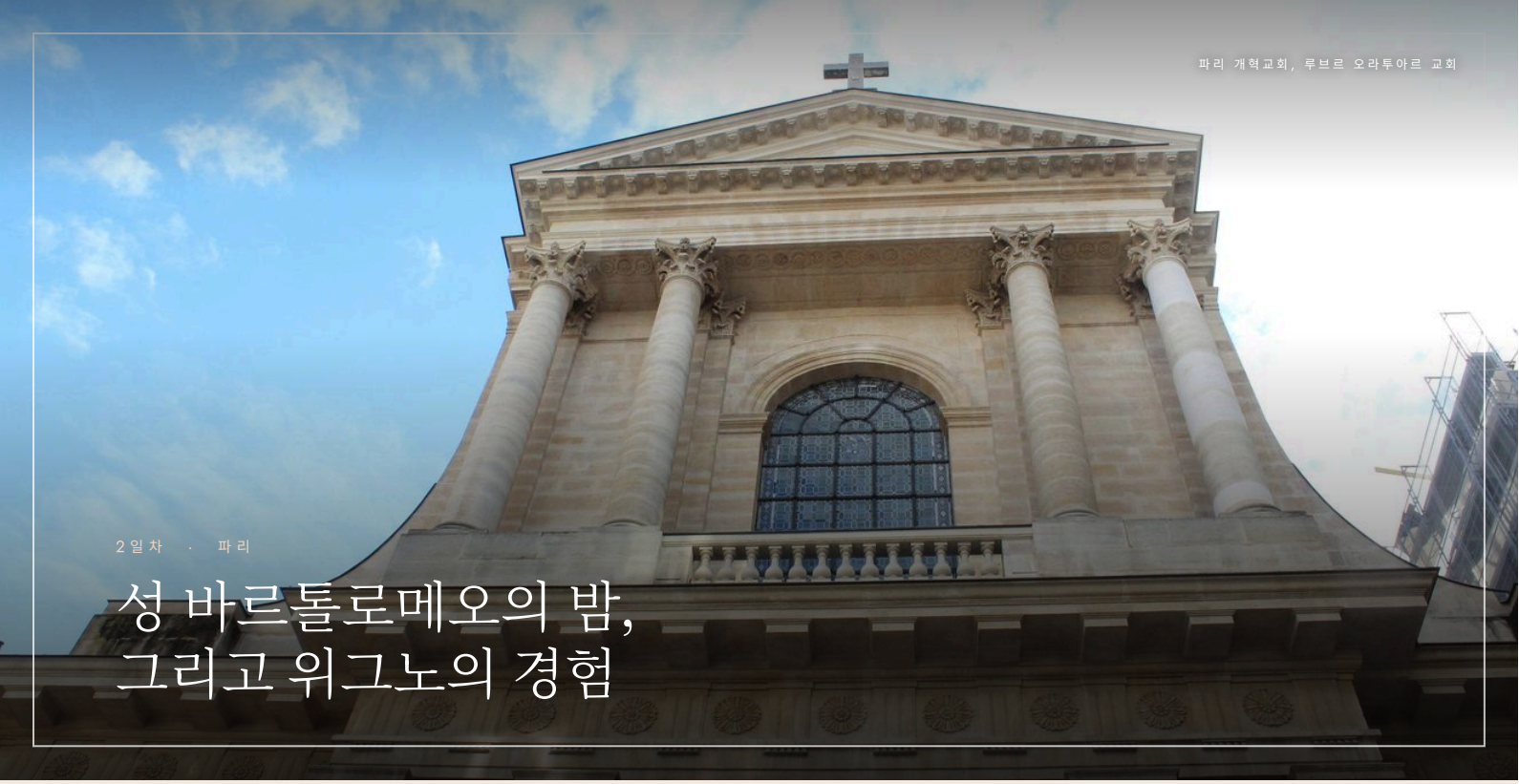
인솔자가 공항에서 일행을 맞이하고, 버스는 **파리** 중심부로 향합니다. 오후에는 비행의 피로를 풀며 쉬십니다.

환영 만찬에서는 짧은 소개로 무대를 펼칩니다. **위그노**는 누구였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왜 오늘도 중요한지, 그리고 이 여정이 파리에서 대서양과 남서부까지 어떻게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지.

알고 계셨나요?

위그노

이 말의 기원은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은 스위스 독일어 '아이드게노센(맹약자)'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파리 개혁교회, 루브르 오라투아르 교회

2일차 · 파리

성 바르톨로메오의 밤, 그리고 위그노의 경험

오전	오후	저녁
루브르 오라투아르 교회와 콜리니 기념비 현지 가이드	생제르맹 로세루아와 루브르 일대 도보 탐방	자유로운 저녁 파리 숙박

루브르 주변에서 보내는 오전. 프랑스 개신교의 역사가 약속이자 단절이었던 곳.

1572년 8월, 파리는 개신교인 **나바라의 앙리**와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며칠 뒤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밤, 결혼식에 모였던 개신교 지도자들이 살해되었고, 그 맨 앞에 **콜리니 제독**이 있었습니다. 폭력은 도시 전체로, 이어 지방으로 번졌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인 **루브르 오라투아르 교회** 뒤편에는 콜리니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길 건너편, 전승에 따르면 **생제르맹 로세루아 성당**의 종이 학살의 신호를 울렸습니다.

오후에는 루브르와 센강, 시테섬 사이 **파리 역사 지구**를 걸어서 둘러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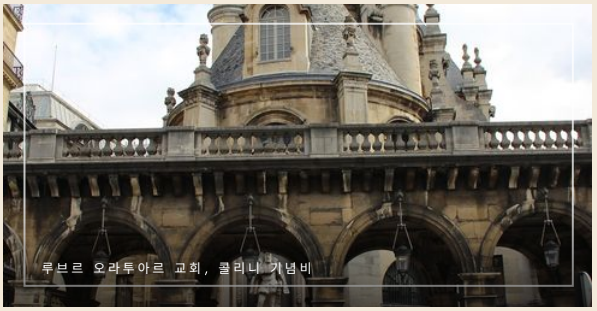
알고 계셨나요?

1811

나폴레옹은 루브르 곁의 옛 오라토리오회 성당을 파리의 개혁교회에 넘겨주었고, 그들은 지금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생제르맹 로세루아 성당



루브르 오라투아르 교회, 콜리니 기념비



제 2 장

굳건한 공동체를 세우다

루아르강을 굽어보는 소뮈르 성. 필리프 뒤플레시모르네 아래에서 이 도시는 개신교 학문의 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포도밭 위의 소뮈르 성

3일차 · 소뮈르

소뮈르, 학자들의 도시

오전

소뮈르로 이동(휴식 포함 약 4시간)

도착 후 점심

오후

소뮈르 성과 개신교 아카데미의 역사

현지 가이드

저녁

응회암 저장고에서 루아르 와인 시음(사정에 따라)

소뮈르 숙박

알고 계셨나요?

1589

나바라의 앙리는 뒤플레시모르네를 소뮈르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훗날 '위그노의 교황'이라는 별명을 낳았습니다.

센강에서 루아르로, 그리고 한 개신교 아카데미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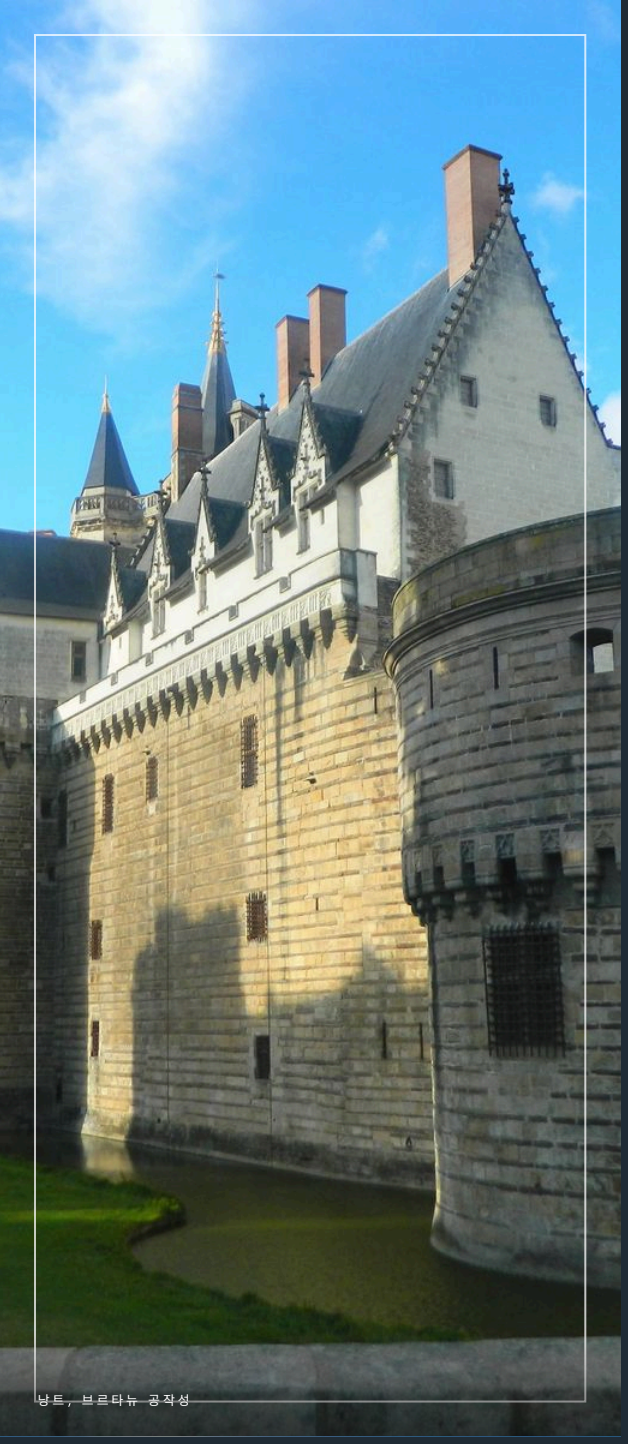
1589년 나바라의 앙리는 소뮈르를 외교관이자 작가이며 당대 가장 존경받던 개신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필리프 뒤플레시모르네**에게 맡겼습니다. 세기가 바뀔 무렵 그는 **개신교 아카데미**를 세웠고, **1685년** 문을 닫을 때까지 이곳은 유럽 각지의 학생과 교수를 불러 모았습니다.

루아르강 위 높이 솟은 **소뮈르 성**이 도시와 그 총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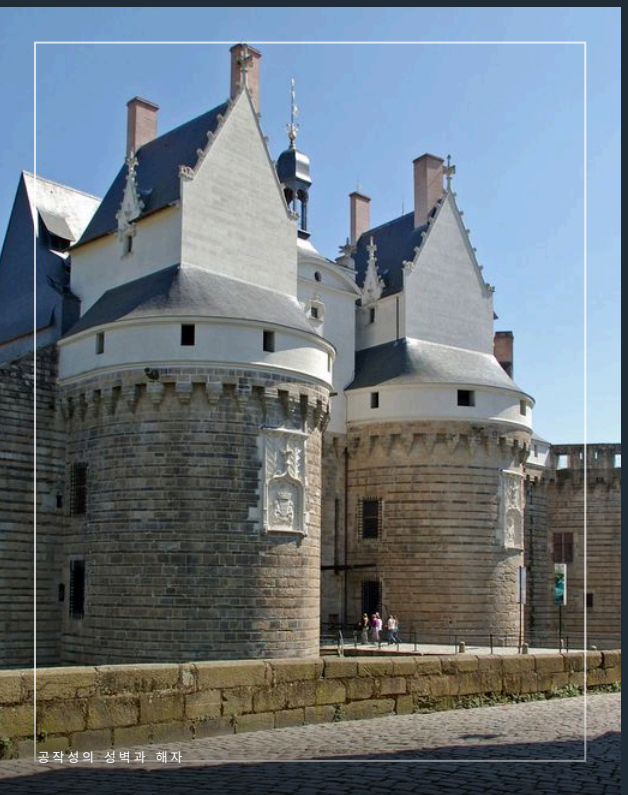
저녁에는 부드럽고 흰 응회암을 파서 만든 저장고에서 **루아르 와인 시음**을 즐깁니다.



소뮈르와 루아르강



낭트, 브르타뉴 공작성



공작성의 성벽과 해자

4일차 · 낭트

낭트,
관용의 약속

오전	낭트로 이동(약 2시간)
오후	브르타뉴 공작성과 낭트 역사 박물관 현지 가이드
저녁	구시가지 산책 낭트 숙박

그 이름이 하나의 약속이 된 도시.

30년 넘는 종교전쟁 끝에, **1598년 4월 앙리 4세**는 낭트에서 도시의 이름을 딴 칙령에 서명했습니다. 칙령은 개신교인에게 **양심의 자유**, 지정된 장소에서의 예배, 공직 진출, 그리고 보장의 의미로 여러 안전 도시를 허락했습니다.

도시 역사 박물관이 자리한 **브르타뉴 공작성**은 이 순간을 낭트의 긴 역사 속에 놓습니다. 대서양 항구로서 쌓은 부에 어두운 기원도 있었음을, 박물관은 숨김없이 마주합니다.

구시가지 산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87년

*1598*년 낭트 칙령과 *1685*년 루이 *14*세의 칙령 폐지 사이에 흐른 세월입니다.



제 3 장

신앙과 정치적 권리를 지키다

라로셸 구항구를 지키는 생니콜라 탑과 사슬 탑. 대서양 연안 개신교의 가장 큰 요새였습니다.



황금빛 속 생니콜라 탑과 사슬 탑

5일차 · 라로셸

라로셸,
개신교의 바다 도시

오전

라로셸로 이동(약 2시간 15분)

오후

구항구와 탑들, 아케이드 거리

현지 가이드

저녁

개신교 역사 박물관(개관에 따라)

라로셸 숙박

종교개혁을 택한 자유로운 항구.

소금과 와인, 해상 무역으로 부를 쌓고 오랜 특권을 자랑하던 **라로셸**은 16세기 대부분 종교개혁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서양 연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신교 도시이자 프랑스 개혁교회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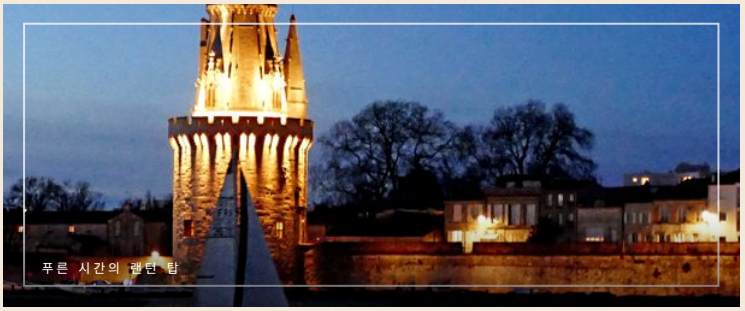
오후는 중세의 탑들이 지키는 **구항구**에서 시작해, 상인 도시의 **아케이드 거리**로 이어집니다.

이어 **라로셸 개신교 역사 박물관**에서 유물과 성경, 문서가 공동체의 일상과 박해, 그리고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1571

개혁교회 전국 총회가 라로셸에서 열려 *1559*년에 채택한 신앙고백을 재확인했습니다.



푸른 시간의 랜턴 탑



구항구와 대시계탑

6일차 · 라로셸

도시를 지키고, 바다 건너 떠나다

오전	오후	저녁
라로셸 포위전과 성곽 현지 가이드	개신교 예배당과 해양 유산	항구 유람선(선택) 라로셸 숙박

*14*개월의 포위, 그리고 피난을 향한 먼 길.

1627년 리슐리외는 도시를 포위하고 거대한 방파제로 항구를 막았습니다. 시장 **장 기통**의 지휘 아래 라로셸은 1년 넘게 버텼습니다. 1628년 10월 항복했을 때, 살아남은 주민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남아 있는 **성곽**에서 이 역사를 읽습니다. 오후에는 **개신교 예배당**과 항구가 그 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685년 이후 많은 가정이 이 해안을 떠나 영국과 네덜란드, 아메리카로 향했습니다. 1688년 위그노 피난민들은 뉴욕 근처에 **뉴로셸**을 세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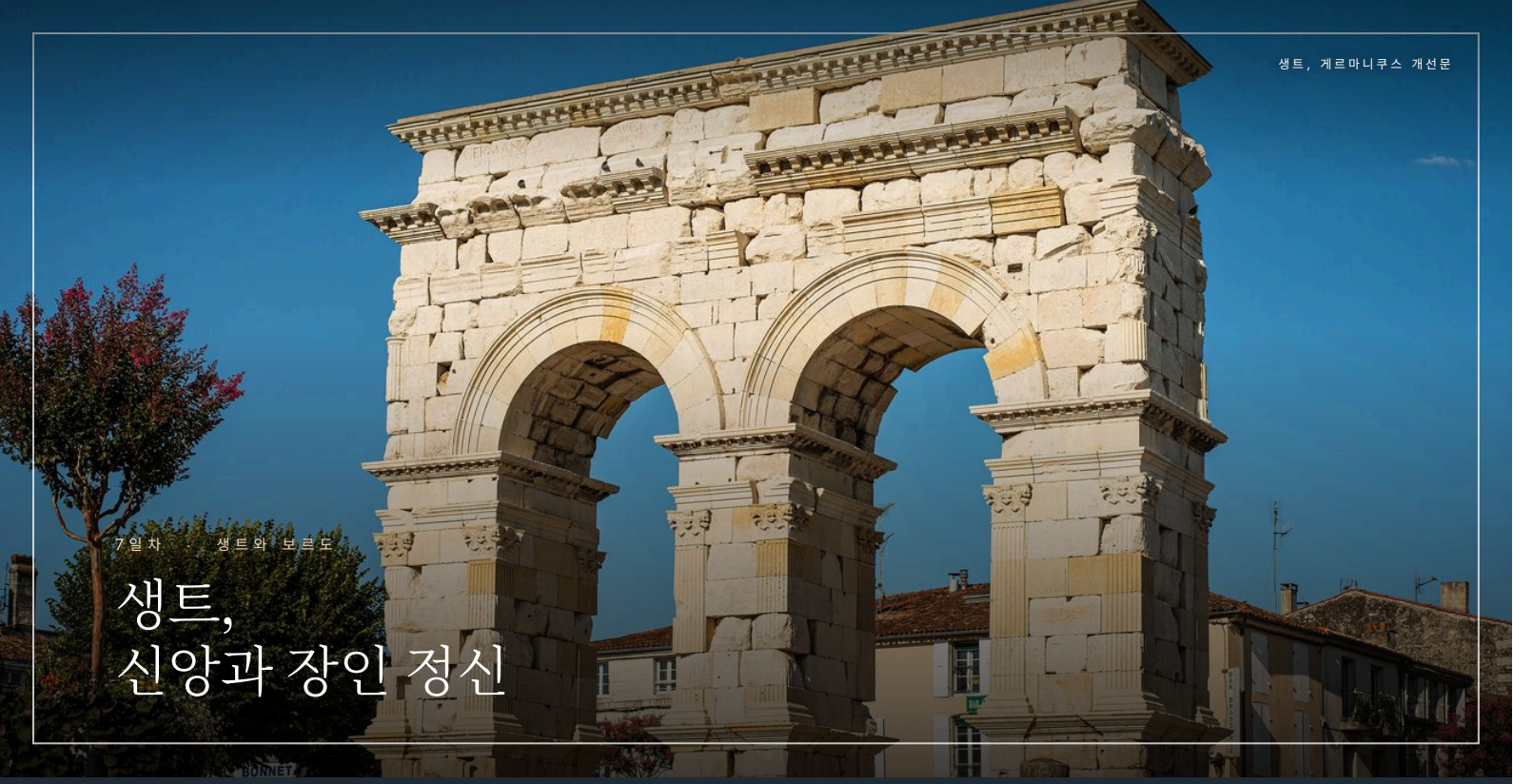
1628

이듬해 맺어진 알레스 화의(和議)는 예배의 자유는 지켜 주었지만, 개신교인의 안전 도시는 빼앗았습니다.



하늘에서 본 라로셸과 구항구

라로셸 항구, 18세기 판화



생트, 게르마니쿠스 개선문

7일차 · 생트와 보르도

생트, 신앙과 장인 정신

오전

생트로 이동(약 1시간)

게르마니쿠스 개선문과 아베이 오 담

오후

베르나르 팔리시, 도자기 공방 체험(선택, 사정에 따라)

보르도로 이동(약 1시간 45분)

저녁

자유로운 저녁

보르도 숙박

알고 계셨나요?

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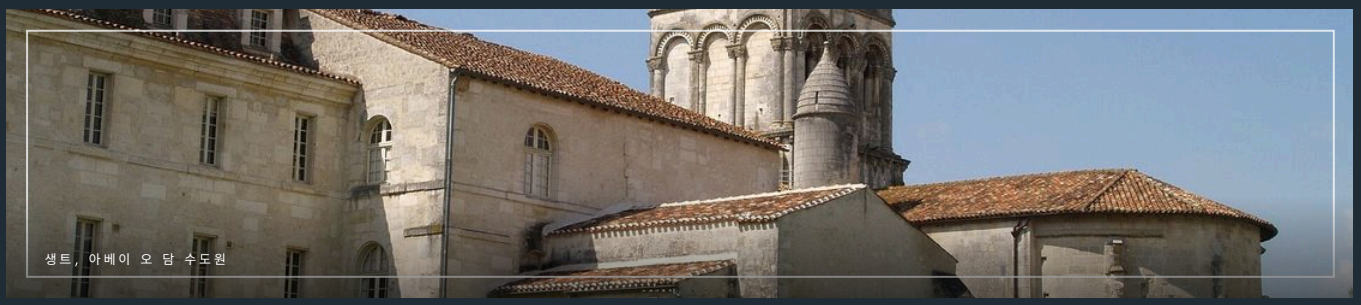
팔리시 자신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유약의 비밀을 찾기 위해 약 *16*년을 매달렸습니다.

로마의 도시, 로마네스크 수도원, 그리고 르네상스의 도예가.

생트는 **게르마니쿠스 개선문**이 서 있는 로마 시대 수도의 기억과, 로마네스크 양식의 큰 수도원 **아베이 오 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예가이자 자연학자, 작가였던 **베르나르 팔리시**는 이곳에서 유약 도자기를 완성하고 도시의 개혁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한때 유력한 후원자들의 보호를 받았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아 1590년 바스티유 감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보르도로 떠나기 전 도자기 공방 체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생트, 아베이 오 담 수도원



제 4 장

보호를 잃다

*1553*년 앙리 *4*세가 태어난 포 성. 베아른은 왕국에서 개혁 신앙이 국교가 된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달의 항구' 보르도



보르도, 생탕드레 대성당

8일차 · 보르도

보르도,
공동체와 대서양 무역

오전	보르도 역사 지구와 가론강변 현지 가이드
오후	생탕드레 대성당과 구시가지
저녁	자유로운 저녁 보르도 숙박

신앙과 상업, 그리고 강 사이에 선 위대한 무역 도시.

보르도에는 16세기부터 개혁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이들은 종교전쟁과 칙령 폐지를 겪었습니다. 18세기에는 북유럽 출신이 많던 **개신교 상인 가문들**이 샤르트롱 부두에서 와인과 대서양 무역의 큰 축을 맡았습니다.

오전에는 **강변**과 부르스 광장, '물의 거울'을 따라 걷습니다. 오후에는 1137년 아키텐의 엘레오노르가 훗날의 루이 7세와 혼인한 **생탕드레 대성당**이 이 역사를 품었던 가톨릭 도시를 보여 줍니다.

알고 계셨나요?

2007

유네스코는 *18*세기의 뛰어난 도시 경관을 지닌 '달의 항구' 보르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9일 차 · 생테밀리옹

생테밀리옹, 돌과 포도밭

오전

생테밀리옹으로 이동(약 1시간)

중세 마을과 모놀리스 교회

오후

샤토 방문과 가이드 시음(사정에 따라)

저녁

보르도로 귀환

보르도 숙박

땅 그 자체의 유산을 위한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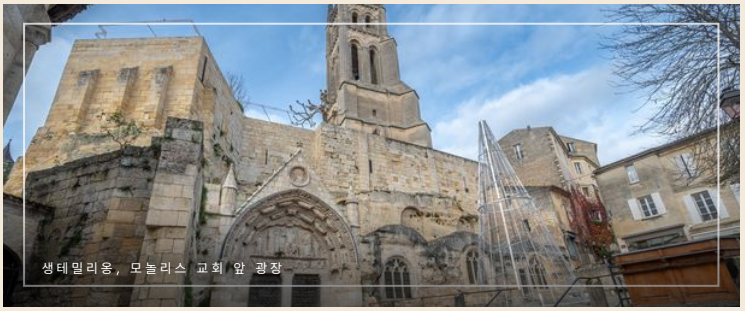
이곳은 개신교의 장소가 아니며, 이날도 다른 척하지 않습니다. **생테밀리옹**은 이야기 사이의 쉼표입니다. 포도밭 위로 황금빛 돌의 중세 마을이 펼쳐지고, 석회암 언덕을 깎아 만든 유럽 최대급의 **모놀리스 교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한 **샤토**가 저장고를 열어 가이드 투어와 **시음**을 마련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풍경을 빚어 온 장인의 일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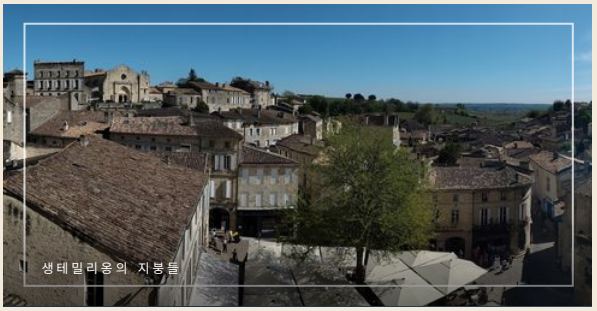
알고 계셨나요?

1999

생테밀리옹 지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문화경관으로 인정한 최초의 포도 재배 경관이었습니다.



생테밀리옹, 모놀리스 교회 앞 광장



생테밀리옹의 지붕들



10일차 · 포

포, 잔 달브레 그리고 앙리 4세

오전

포로 이동(휴식 포함 약 3시간)

오후

포 성

현지 가이드

저녁

해 질 녘 피레네 대로

포 숙박

알고 계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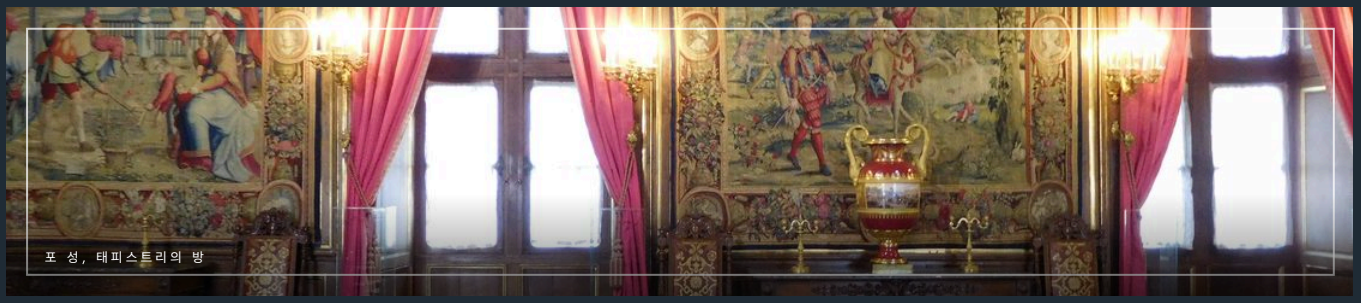
거북 등딱지

성에는 앙리 4세의 요람으로 쓰였다는, 지역에서 사랑받는 전승 속 거북 등딱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택한 여왕, 평화를 택한 왕.

나바라의 여왕이자 베아른의 군주였던 **잔 달브레**는 1560년 개혁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1571년 이를 자신의 영토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1553년 이 성에서 태어난 아들 **앙리**는 1589년 프랑스 왕이 되어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낭트 칙령에 서명했습니다.

르네상스 양식의 방과 태피스트리를 간직한 **포 성**이 두 사람의 기억을 지킵니다. 저녁에는 **피레네 대로**가 산맥을 향해 열립니다.



포 성, 태피스트리의 방

11일차 · 오르테즈

베아른의 개혁교회 유산

오전	오후	저녁
오르테즈로 이동(약 50분) 퐁비외와 구시가지	잔 달브레의 집과 베아른의 개신교 유산 (사정에 따라)	베아른 지방 만찬 포 숙박

한 왕국의 목사들을 길러 낸 작은 도시.

1566년 잔 달브레는 베아른의 목사와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오르테즈**에 개혁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포강 위 요새 탑을 얹은 **퐁비외**는 중세 이래 도시를 지켜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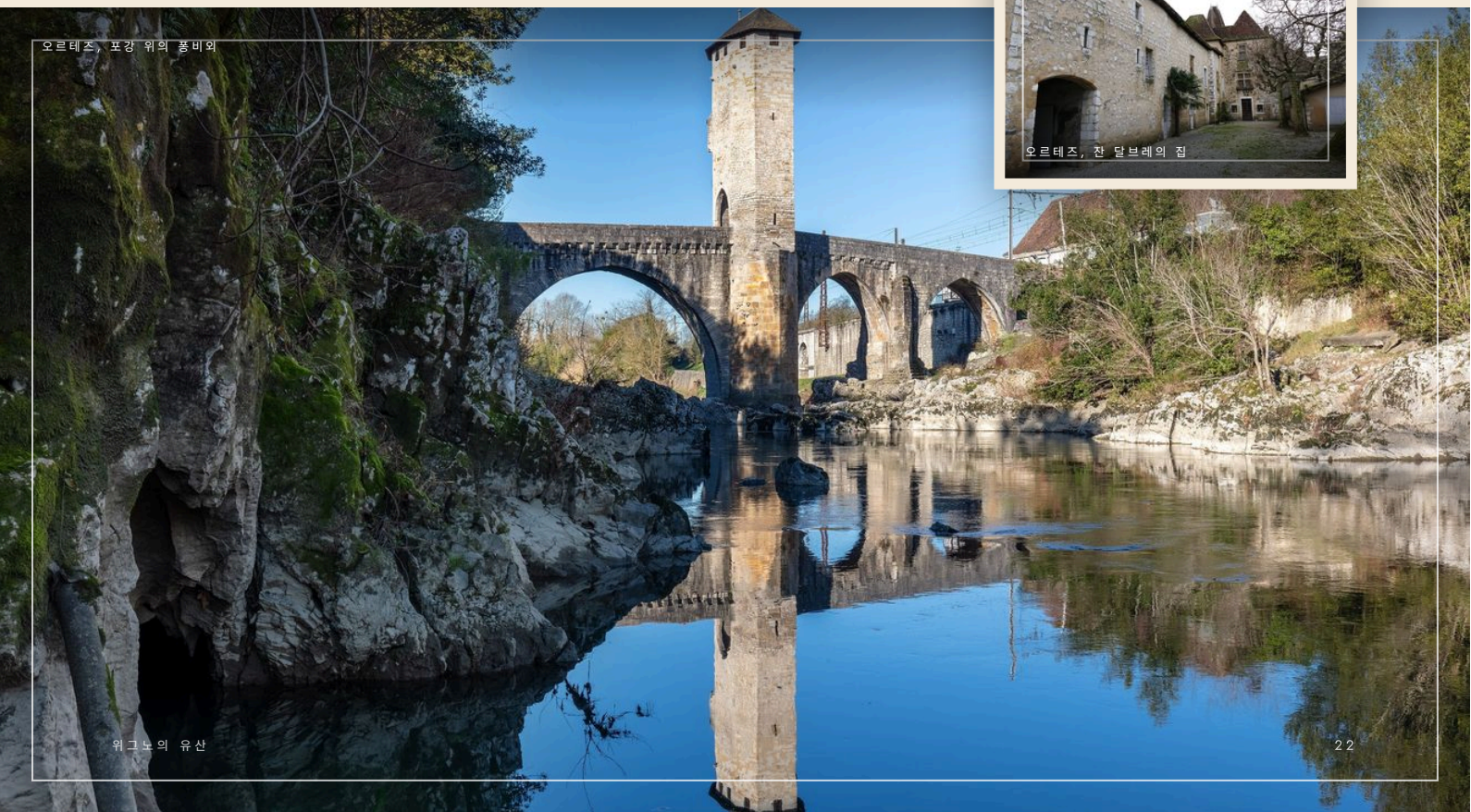
1620년 루이 13세는 베아른을 프랑스에 병합하고 가톨릭 예배를 복원했습니다. 칙령 폐지 몇 달 전인 1685년, 이곳에서 **용기병 박해(드라고나드)**가 대규모 강제 개종을 강요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신교 가정들은 버텨 냈고, 원하시면 **현지 개신교 공동체**와의 만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베아른 요리**를 즐깁니다.

알고 계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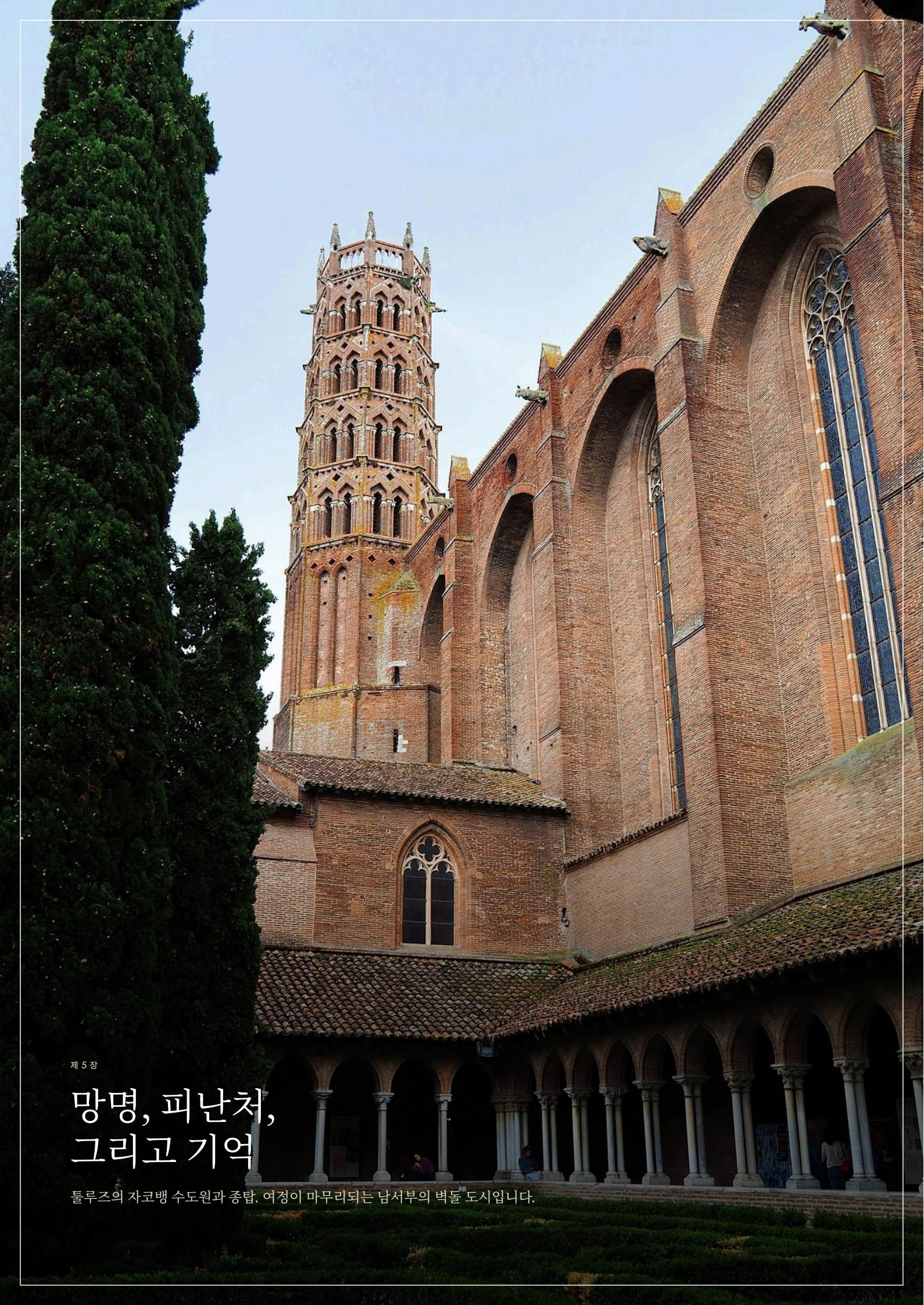
1685

베아른은 강제 개종을 위해 개신교 가정에 군대를 주둔시킨 최초의 지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를 '드라고나드'라 부릅니다.



오르테즈, 포강 위의 퐁비외

오르테즈, 잔 달브레의 집



제 5 장

망명, 피난처, 그리고 기억

툴루즈의 자코뱅 수도원과 종탑. 여정이 마무리되는 남서부의 벽돌 도시입니다.



12일차 · 몽토방과 툴루즈

몽토방, 끝내 버텨 낸 도시

오전

몽토방으로 이동(휴식 포함 약 3시간 30분)

점심

오후

카름 예배당, 나시오날 광장, 앵그르 부르델 미술관

현지 가이드

저녁

툴루즈로 이동(약 1시간)

송별 만찬

버티고, 살아남고, 기억한 벽돌의 도시.

1560년대부터 주민 다수가 개신교인이던 **몽토방**은 낭트 칙령이 보장한 안전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621년** 도시는 루이 13세 군대의 포위를 견뎌 냈고, 군대는 석 달 가까이 지나 물러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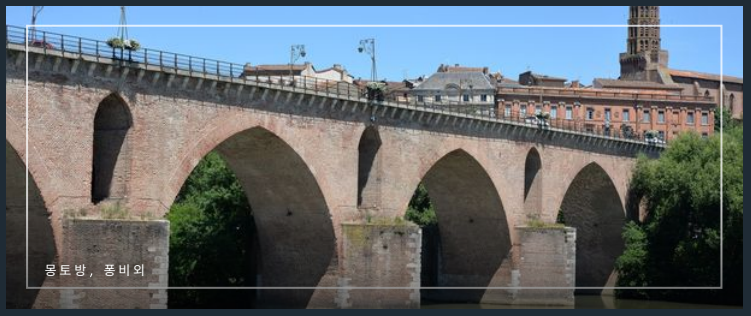
이곳의 개신교 공동체는 칙령 폐지와 기나긴 '광야'의 시절을 견뎌 냈습니다. **카름 예배당**, 아케이드로 둘러싸인 **나시오날 광장**, 타른강을 굽어보는 옛 주교관의 **앵그르 부르델 미술관**이 두 전통이 함께 빚은 도시를 보여 줍니다.

툴루즈에서는 **송별 만찬**이 마지막으로 일행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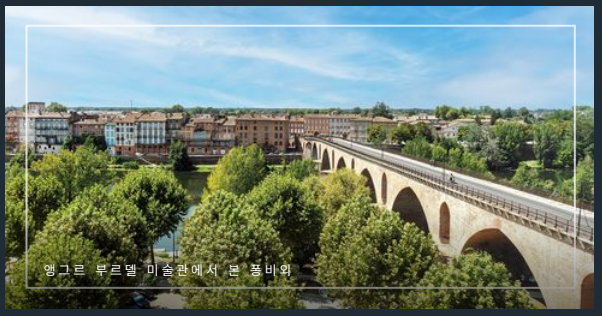
알고 계셨나요?

1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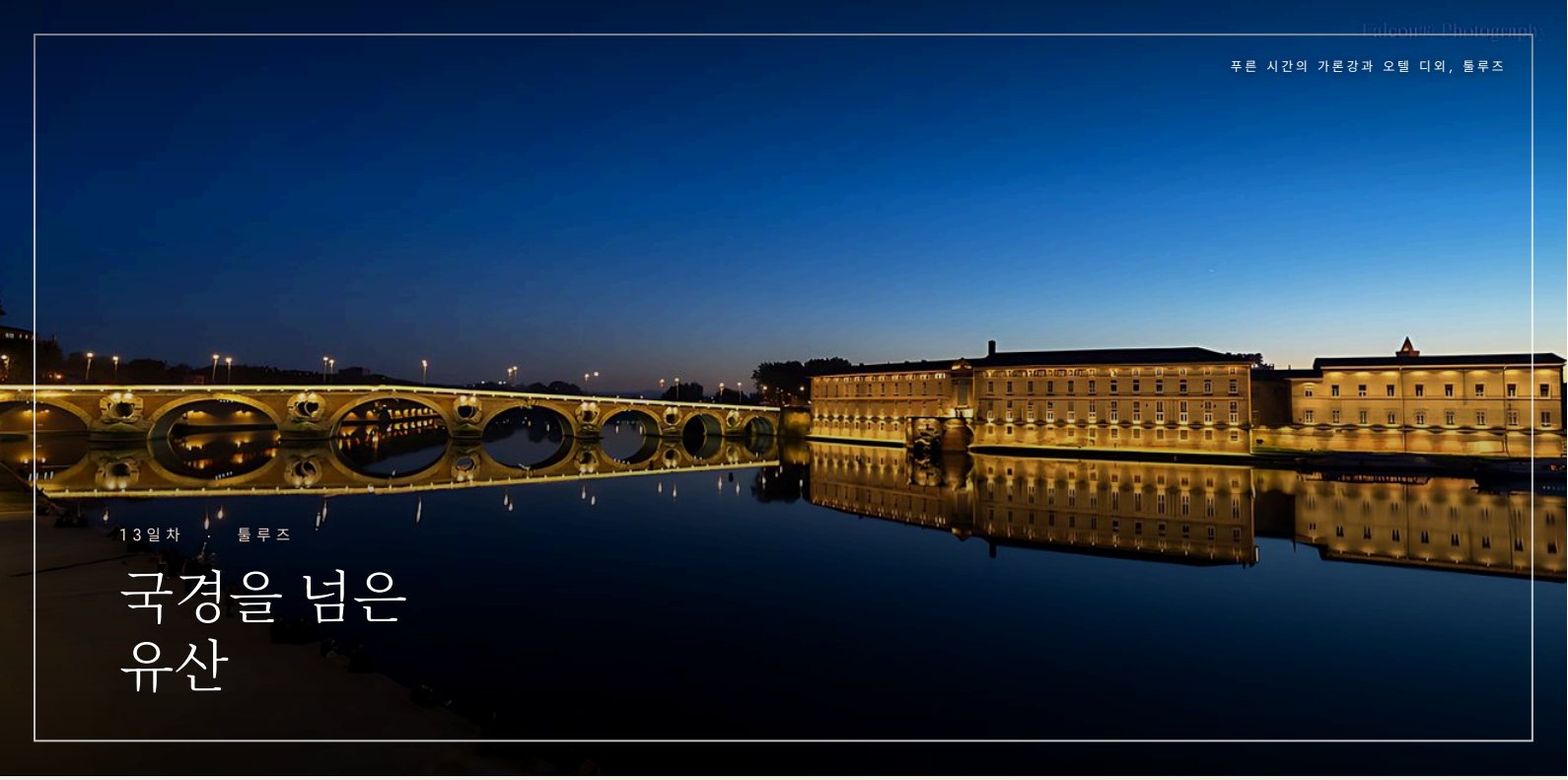
화가 장오귀스트도미니크 앵그르는 몽토방에서 태어났고, 작품의 상당 부분을 고향에 남겼습니다.



몽토방, 퐁비외



앵그르 부르델 미술관에서 본 퐁비외



13일차 · 툴루즈

국경을 넘은 유산

오전	오후	저녁
툴루즈 블라냑크 공항으로 이동	귀국 항공편(필요 시 파리 경유)	귀국

항공 일정에 따라 버스가 일행을 **툴루즈 블라냑크 공항**으로 모십니다. 출발이 늦은 경우 시내에서 자유로운 오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정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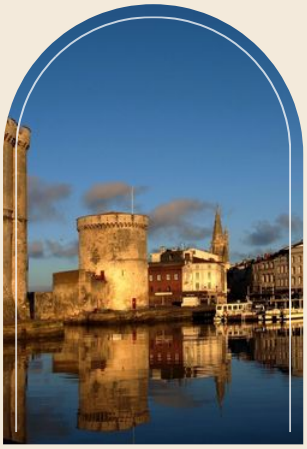
국경을 넘어간 것들

1685년 이후 약 **20만 명**의 프랑스 개신교인이 왕국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성씨, 성경과 시편 찬송을 품고 **제네바**와 **암스테르담**, **런던**과 **베를린**, **희망봉**, **뉴욕**, **버지니아**, **캐롤라이나**로 향했습니다. 남은 이들은 1787년 법이 다시 인정할 때까지 조용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여행은 역사를 고난으로만 축소하지 않습니다. 세우고, 논쟁하고, 기도하고, 교역하고, 가르친 공동체들, 양심을 지키고 가는 곳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 준 사람들을 보여 줍니다. 그것이 위그노의 유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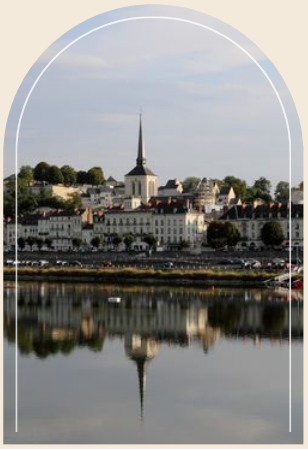
여행의 하이라이트

이 여행을 떠나야 할 네 가지 이유



바다와 함께하는 라로셸의 이틀

위그노의 떠남과 가장 깊이 이어진 도시에서 만나는 구항구, 포위전, 개신교 역사 박물관.



소뮈르 아카데미

루아르강 위로 펼쳐진 뒤플레시모르네의 지적 세계.



앙리 4세의 요람

포 성과 잔 달브레의 개혁 신앙 베아른, 그리고 오르테즈에서의 하루.



생테밀리옹

유네스코 세계유산 포도 재배 경관과 모놀리스 교회.

지역 문화 체험

루아르 와인 시음

소뮈르 근교 응회암 저장고에서(사정에 따라).

바다의 라로셸

중세의 탑 사이를 지나는 선택 유람선.

생통주의 장인 정신

베르나르 팔리시를 따라가는 도자기 공방 체험(선택, 사정에 따라).

보르도의 포도밭

생테밀리옹의 샤토 방문과 가이드 시음.

베아른의 식탁

포에서 즐기는 지역 만찬: 가르뷔르, 오리 요리, 오쏘이라티 치즈.

미식과 와인 체험은 각 지역의 즐거움과 문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며, 개신교 역사의 일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기준,
최상급 프리미엄

호텔

가능한 한 좋은 입지의 4성급·5성급 프리미엄 호텔.

교통

전 일정 화장실과 냉방을 갖춘 전용 대형 관광버스.

동행

전 일정을 함께하는 한국어 인솔자와 주요 방문지의 공인 현지 가이드.

포함 사항

- 선택한 등급의 숙박
- 일정에 따른 전용 버스 이동
- 전 일정 전문 인솔
- 최종 일정에 포함된 가이드 투어
- 환영 만찬과 송별 만찬을 포함한 지정 식사
- 확정 견적에 따른 입장료 및 체험

선택 체험

- 라로셸 항구 유람선
- 생트의 도자기 공방 체험
- 베아른의 현지 개신교 공동체와의 만남
- 파리 또는 툴루즈 추가 숙박

여행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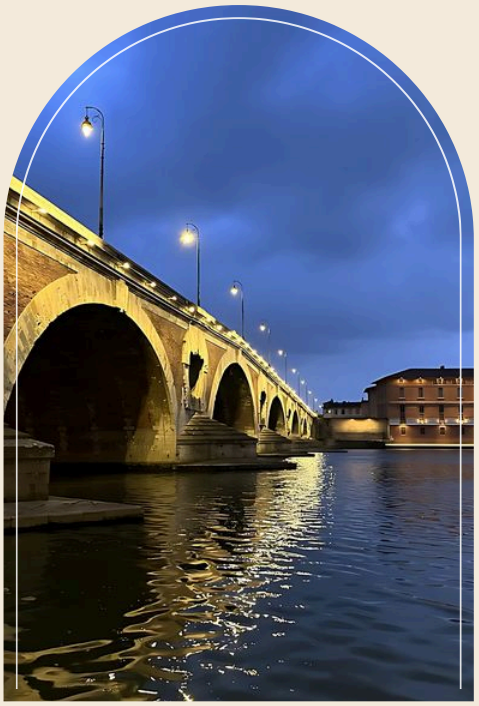
일정의 리듬	오전 8시경 출발, 오전에 한 곳, 오후에 또 한 곳.
도보	보통. 라로셸과 생테밀리옹, 구시가지의 돌길, 성과 탑의 계단.
버스	이동이 긴 날은 이틀(파리–소뮈르, 포–몽토방)이며, 모두 휴식을 넣고 일정을 가볍게 구성했습니다.
항공	파리 샤를드골 도착, 툴루즈 블라냑 출발. 국제선 연결 시간을 넉넉히 잡아 주십시오.
관람	일부 박물관은 계절별로 운영하거나 단체 요청 시 개관하며, 정확한 방문지는 견적과 함께 확정합니다.

일정은 예약 시점의 장소, 가이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 시간은 예상치입니다.

한눈에 보는 여행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정이 시작됩니다

> 하나의 실로 엮은 여행. 첫 교회에서 그들이 남긴 기억까지, 한 공동체의 삶을 따라갑니다.



툴루즈, 퐁뇌프

기간	12박 13일, 파리에서 툴루즈까지
호텔	4성급·5성급 프리미엄 호텔
교통	전 일정 전용 대형 관광버스
가이드	한국어 인솔자와 현지 가이드
체험	루아르 와인 시음, 라로셸 항구, 생통주 도자기, 생테밀리옹 샤토, 베아른 만찬
식사	환영 만찬, 베아른 만찬, 툴루즈 송별 만찬
여행 시기	4월 – 6월, 9월 – 10월 중순

일정은 예약 시점의 장소 및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 Wikimedia Commons: Superchilum (CC BY-SA 4.0), Chabe01 (CC BY-SA 4.0), Rolf Kranz (CC BY-SA 4.0), Ineremhat (CC BY-SA 3.0), BastienM (CC BY-SA 3.0), Didier Descouens (Public domain), Martin Falbisoner (CC BY-SA 3.0), Dvcireland (CC BY-SA 4.0), Didier Descouens (CC BY-SA 4.0), Calips (CC BY-SA 3.0), Diliff (CC BY-SA 3.0), Pline (CC BY-SA 3.0), Gary Todd from Xinzheng, China (CC0), Jacques DASSIÉ (CC BY-SA 4.0), Anonymous 18th-century engraver (Public domain), Norbert Nagel (CC BY-SA 4.0), Myrabella (GFDL), Varvac (CC0), Diego Delso (CC BY-SA 4.0), Peter Potrowl (CC BY-SA 4.0) · Flickr: Globetrotteur17… Ici, là-bas ou ailleurs… (CC BY-SA 2.0), Daniel Jolivet (CC BY 2.0), Jon Mokoroa (CC0 1.0), Ruben Holthuijsen (CC BY 2.0), Pom' (CC BY-SA 2.0), Sergei Gussev (CC BY 2.0), Hervé Simon (CC BY-SA 2.0), xiquinhosilva (CC BY 2.0), Dennis Jarvis (CC BY-SA 2.0), Falcon® Photography (CC BY-SA 2.0) · Unsplash: Bastien Nvs, Julien Doclot, Mikael Padeiro, Carole Hachet.